

Paris 통신 - 1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증샷부터 올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돌아다니면서 내 인물 사진을 잘 찍지 않습니다. 외모에 그리 자신 있는 것도 아닌 데다가 풍경을 찍는 게 더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Monet가 수련 연작을 그렸다는 Giverny에 가서는 인증샷을 하나 찍어야 하겠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거기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Monet의 그림에 나오는 바로 그 광경이 눈 앞에 펼쳐지는데 정말로 숨이 멎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Monet의 수련 연작에 자주 등장하는 일본식 다리가 실제로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허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허름한 다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으로 바꾼 것이 그의 능력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그러나 다음에 그 다리 그림을 볼 때 웃음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Giverny에서 Paris로 돌아올 때는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Monet의 광팬인 나로서는 그 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Paris 가면 거기 꼭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그리 많이 들지 않고 가기도 쉽습니다.

Paris 통신 - 2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 여행 가면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지요. 음식이 입에 맞느냐도 그렇고,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도 그렇지요. 그런데 프랑스 여행의 경우에는 잘만 하면 미식을 즐길 기회도 있지요. 다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큰 문제이긴 하지만요.

지난 겨울 일본 엔화 가치가 최고 수준일 때 도쿄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우리 돈 1만 5천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다꾸양 몇 쪽도 없이 달랑 라면만 나오는데 그 값을 내려니 정말 억울하더군요. 그런데 파리에 비하면 도쿄는 양반이더군요. 점심 한 끼 샐러드로 때워도 최소 3만원은 들테요. 환율 생각하면 아무 것도 사먹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미식을 한 번 해볼까 하고 St. Anthony's Temptation이란 거창한 이름이 달린 요리를 시켜 보았습니다. 밑에 영어로 설명이 달려 있어서 대략 뭐가 나오는지는 알고 시켰습니다. 그 요리는 돼지의 각 주변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족발이야 우리도 자주 먹지만, 귀, 꼬리, 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시켜 보았더니 제일 위의 사진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각 부위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돼지 코가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아래 더 자세한 사진 하나를 첨부하지요. 그 사진 보면 돼지 코의 1/4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맛이 어땠나요? 모두 족발이나 돼지 껍데기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다만 소금에 절여 매우 짭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지는 않더군요. 어찌 되었든 프랑스 사람처럼 미식가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돼지 코를 먹을 때 기분이 제일 그랬습니다. 다른 부위는 괜찮던데.)

한 번은 스테이크나 한 번 썰어볼까 하고 Tartare Steak라는 것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울 것이냐고 묻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다 음식이 나오고 나서야 왜 묻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육회로 만든 스테이크니까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육회를 먹지만, 난 그걸 몇 점 집어먹을 때마다 늘 찹찹합니다. 혹시 기

생충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육회 한 접시로 배를 채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막막하네요. 그래서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 생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관리를 잘 했을까. 당연히 믿어도 되겠지.”

아직까지는 아무 탈 없이 견재합니다.

듣기로는 미국에서도 이 요리 가끔 나온다고 하더군요. 특히 육회를 즐기는 체질이 아니라면 조심해 시키세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실패담은 바로 이겁니다. 토끼 고기를 먹은 적도 있지만, 알고 시킨 것이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Paris 통신 - 3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Paris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어떻게 그리도 아름답게, 그리고 철저하게 도시 전체를 디자인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1860년대 Baron Haussmann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것이라는데, 정말로 그의 해안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보다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행된 서울 강남의 도시계획은 얼마나 치졸한지요. 멋진 작품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정말로 아쉽습니다.) 몽마르뜨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지형을 어찌도 그리 적절하게 이용해 도로를 만들고 건물들을 배치했는지 경탄했습니다. 맨 위의 사진을 보면 거리, 거리가 하나의 미술작품처럼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예술 감각은 사소한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Giverny 갈 때 탄 기차 내부입니다. 뭐 그리 비싼 기차도 아닌데 좌석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 놓았더군요. 사소한 데까지 신경을 쓰는 그 감각이 부럽네요.

맨 아래 사진은 노트르담 사원이 있는 시테라는 곳의 지하철 역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 이 지하철 입구 장식이 프랑스의 국보라고 하네요. 국보에 버금갈 중요성을 갖는다는 뜻이겠지요. 내 눈에는 그저 옛날 취향의 입구 장식일 뿐인데요. 알고 보니 이것은 아르 누보 (Art Nouveau) 계통의 대표적 작품이라네요. 산업혁명 이후 모든 것이 효율성 위주로 직선화되는 데 반발해 부드러운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리자는 의도에서 일어난 예술운동이 바로 아르 누보지요. 쇠 장식도 부드러운 곡선이 강조되고 Metropolitain이란 간판의 서체도 부드러움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지하철을 타니 탈 때마다 그 간판을 다시 한 번 쳐다 보게 되더군요.

사족: Paris에 다녀와 보니 전국의 강을 시멘트로 쳐바르려고 하는 천박한 감각이 더욱 경멸스러워지네요.

Paris 통신 - 4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Paris의 약간 어두운 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녀 본 도시 중 여기만큼 길가에 거지가 많은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걷다 보면 거지들이 엎드려 있는 광경을 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하철 역에 거지가 엎드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처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이렇게 거지가 많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 외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는 보스니아에서 온 난민이라고 하더군요. 외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기에 할 수 없이 구걸을 하는 측면도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부회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보면서 프랑스 사회의 톨레랑스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제3국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 길가에서 구걸을 하면 신문이든 뭐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그런 사람들 빨리 내쫓지 뭐하고 있느냐는 비난이 빗발칠 것입니다.

그러나 Paris 시민들은 그런 불쌍 사나운 모습을 매일 그대로 지나치며 다니는 것 같습니다. 관광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쓸어내는 게 더욱 중요할 법도 한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거지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강아지를 옆에다 끼고 구걸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 줄이는 게 중요할 텐데 개까지 기르다니요! 강아지를 옆에다 두고 구걸을 하면 더 쉽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 개들은 대부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빨빨거리며 나대는 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설사 눈을 뜨고 있더라도 거의 죽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개들도 자신의 팔자를 알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지, 아니면 수면제를 먹이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래 사진은 길거리 공연 모습인데, 이것은 조금 건전한 방식의 모금행위입니다. 광장, 지하철 역 같은 데 가면 온갖 악기들 연주해 가면서 적선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요. 아마 세계에서 그런 사람이 거리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 Paris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연주 실력이 꽤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연주 실력으로 왜 길거리에 나와 자선을 바라고 있는지 의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 없는 음악을 연주하고 깡통을 내뱉니다. 그게 Paris 지하철의 또 하나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자선을 바라는 사람들은 우리로선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우리 같은 방문객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쓰리꾼입니다. ‘물 반, 고기 반’이란 말이 있듯, 에펠탑이나 샹젤리제 같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쓰리꾼 천지라고 합니다. 여행 가서 쓰리꾼에게 털리고 나면 정말로 속수무책이지요. 더군다나 여권 같은 중요한 것들 잃어버리면 낭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도 한 번 당할 뻔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세 명의 젊은 여성이 길을 묻더군요. 내가 보기에 관광객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행색이지만, 그래도 길 묻는 사람을 야박하게 뿌리칠 수 없어 질문에 응해 줬지요. 오페라 극장이 어디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거기서 한참 먼 곳에 있으니 건너편으로 가서 도심으로 가는 지하철 타고 다시 바꿔 타라고 일러 줬습니다. 그리고 Paris에는 오페라 극장이 두 개 있기 때문에 Opera Garnier를 찾느냐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 황설후설 하더군요. 영어 말고 이태리 말로 해달라고 탄소리까지 해대면서요.

그러다가 갑자기 Opera Garnier가 아니라 Opera Bastille을 찾는다고 말을 바꾸네요. 그때까지도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시다. 순간 내 바지 주머니를 스치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셋 중 가장 어린 소녀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노려 보는 것으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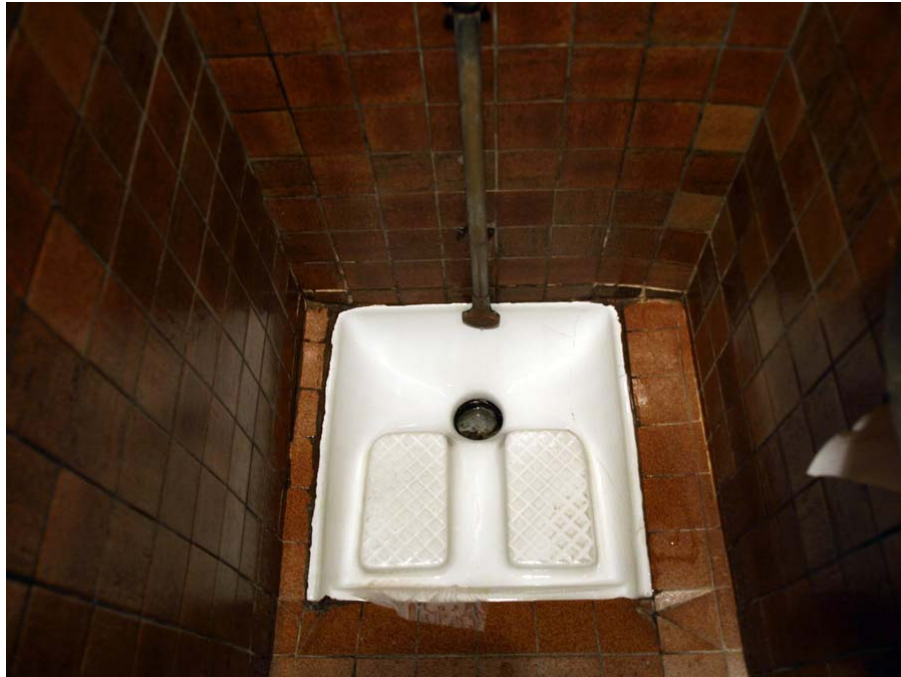
그 다음부터는 혹시 누가 길을 물어도 거리를 두고 대화를 했습니다. 해외 여행 다녀온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쓰리를 한다고 하네요. 내 제자 중 하나는 터키에서 사권 사람이 건네주는 음료 마시고 까무러쳐 모든 걸 털렸다고 하기도 하구요.

이렇게 쓰리꾼이 많다는 사실을 프랑스 정부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복 형사 몇 풀면 대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게 조금 의문이군요. 나름대로 비용-편익 분석을 해보았을까요? 아니면 여기서도 톨레랑스의 원칙을 적용했을까요?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내 인상으로 쓰리꾼들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Paris 통신 - 5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화장실의 확보입니다. 어떤 여행지가 얼마나 좋은지의 여부가 화장실의 가용성, 청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가 중국 여행을 그다지 즐겨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Paris는 이 점에서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확실히 화장실의 가용성이 떨어집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길 옆에 맨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무료화장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 경험에 따르면 그것들은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쁠 때 거길 가보면 고장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정없이 시간을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결성의 측면에서도 믿음이 가지 않았구요. (예전에는 이런 화장실이 유료였는데, 그 대신 한 사람이 쓰고 난 후 바로 물청소를 해서 청결성을 확보했답니다. 그러나 무료가 된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다른 유럽 국가도 비슷하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짜증나는 일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음식점 화장실도 그렇고, 철도 역 화장실도 그렇고 심지어 백화점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아니, 음식점 고객에게 돈을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롯데백화점에서 화장실을 유료화하면 거기 가려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을 보면 Point WC 라는 사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프랭땅 백화점 2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가 분명히 화장실인데, 왼쪽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일 것 같습니까? 나라도 오른쪽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왼쪽으로 들어가자 않습니다.

거기 5분 정도 서서 지켜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 문을 열려 하더군요. 그런데 오른쪽 문을 열면 요란한 알람 소리가 진동합니다. 화장실은 매장처럼 생긴 왼쪽입니다. 역시 프랑스 사람들 답게 화장실조차 멋지게 꾸몄다고 감동하시렵니까? 멋지게 꾸민 대신 작은 일 한 번 보러 가도 1유로를 내야 합니다. 1750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백

화점에서 유일한 고객용 화장실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Paris에서 며칠을 지나고 보니 화장실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 나타나더군요. 대부분의 카페는 본 영업장과 노천영업장이 나뉘어져 있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거의 예외 없이 본 영업장 맨 뒤 구석, 아니면 위층 혹은 지하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노천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간다고 해봅시다. 본 영업장으로 걸어 들어가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본 영업장에 있는 종업원은 여러분이 노천카페에서 왔는지 혹은 길거리에서 바로 걸어들어 왔는지 전혀 구별을 못합니다. 자기 일 바쁜데 어디서 걸어들어 왔는지 확인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령은 당당히 화장실 쪽으로 걸어들어가는 겁니다.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때 종업원의 제지를 받을 확률은 문자 그대로 0입니다. (나 자신은 이런 방법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화장실로 걸어 들어갈 때 받은 인상입니다.) 다음에 Paris 여행할 때 이 방법 한 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진은 나로 하여금 “아, Paris에도 이런 화장실이 있구나.”라는 작은 감동을 준 광경입니다. 이 사진은 시내 한 복판에 있는 카페의 화장실에서 찍은 것입니다. (절대로 시골에서 찍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 쭈그리고 앉아 볼 일을 보는 프랑스 사람을 상상해 보니 웃음이 나오더군요.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앉아 일을 봐야 하는지는 아시겠지요?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다 해도 물 튀어 오르는 거 조심해야 하겠네요. 물 내릴 때는 100미터 달리기 선수같은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쳐야 하구요.

Paris 통신 - 6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Paris는 박물관, 미술관의 도시라고 할 만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가 만만치 않아 그런 데 다 돌아 다니면 주머니에 구멍이 날 정도입니다. 다행히 매달 첫 일요일에는 대부분의 박물관, 미술관이 무료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것을 이용해 세 군데나 도는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그 유명한 Louvre 박물관인데, 첫 번째 사진에서 보는 피라미드를 통해 입장료 없이 유유히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 동안 본 박물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 Louvre 박물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우리 선배 교수님 중 세상살이의 지혜가 아주 많으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이 박물관을 찾았을 때의 일화가 하나 전해 내려 옵니다. 그 분을 안내해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야, 이 많은 걸 언제 다 보겠니? 나에게 딱 세 가지만 보여다우.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참으로 practical 한 목표 설정 아닙니까?

나도 이 지침에 따라 Louvre 박물관을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를 세 번이나 갔는데, 유독 함무라비 법전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그것을 꼭 보겠다는 일념으로 뒤져 보았습니다.

난 법전이라 해서 무슨 낡은 책인줄 알았습니다. 막상 찾아가 보니 두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비석이었습니다. (옆에서 놀라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청년의 모습이 웃기지요?) 비석의 위쪽에 있는 조각상은 함무라비 왕이 태양의 신으로부터 계율을 받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비석의 하단부에 설형문자로 법전의 내용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작년 British Museum에서 로제타 스톤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의 감동이 생각나더군요. 우리나라에 삼국시대가 열리기도 훨씬 전에 이런 위대한 문화유산을 만들었다는 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작년에 잘 보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모나리자 전시장에 들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림 앞의 인파 때문에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 아래 사진은 최선을 다해 근접해 찍은 사진입니다. 10년 전에 거기 갔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앞에서 실컷 보고 왔는데요. 막상 가보면 그저 그런 그림 같은데 왜 이리 난리를 떠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bandwagon effect 라고 부르는 것이겠지요.

세계 여러 나라 박물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제국주의 시대에 정말로 많은 약탈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집트, 그리스에서 그렇게 많은 유물들을 반출해 나왔는데도 아직 그 나라에 유물들이 남아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신의 조상이 만든 문화재를 타국 땅에서 보는 이집트, 그리스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도 일본 가면 그런 심정이 될 테지만요.

p.s. 내가 외국 박물관 가서 그래도 만만하게 느꼈던 유일한 예외는 일본 도쿄의 국립박물관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Paris 통신 - 7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사를 배울 때 프랑스는 형편없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이웃 영국이나 독일과 싸워 패하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정치적 혼란이 심해 제5공화국에 이를 정도였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프랑스에 가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Invalides에 있는 전쟁 박물관에는 그들의 영광스런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보불전쟁에서 독일에 패하긴 했지만 1, 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이겼으니 결국 프랑스의 우위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프랑스의 진정한 위대함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적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데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민주주의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성취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Paris를 방문했을 때는 그저 명승지 위주로 돌았기 때문에 Bastille에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거길 꼭 가보기로 결심하고 먼 길을 걸어 걸어 Bastille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루이 16세 때의 Bastille 감옥은 자취를 감추고 사진에서 보는 기념탑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바로 그 민주 혁명의 진원지였구나라는 생각에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탑 밑에는 대혁명 때 희생된 애국자들이 묻혀 있다는군요.

반동적인 외세의 개입에서 프랑스 공화국을 지키고자 출정했던 민병대가 불렀다는 ‘라 마르세이어즈’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총을 들고 전선을 향하는 그들의 불타는 애국심은 정말 감동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보는 사진은 샹젤리제 거리 끝에 있는 Concorde 광장입니다. 여기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죠. 이제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모두 씻겨 나가고, 7월 14일의 Bastille Day 퍼레이드 준비로 광장은 부산했습니다. 그 퍼레이드를 보지 못하고 귀국한 것이 큰 유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혁명의 구호는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였습니다. 이 혁명

구호는 아직도 프랑스의 정신을 지배하는 구호로 남아 있습니다. Paris 대학 담벼락에 새겨진 맨 아래 사진의 이 구호도 나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 이것이야말로 민주적인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적절하게 축약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니 우니 해서 서로를 헐뜯는 우리의 천박한 정치 풍토가 새삼 개탄스럽게 느껴졌습니다.